

지 상 범 석

인연 가꾸며 삽니다

“일곱집 밥 얻어 중생과 인연 맺으신 부처님 가르침 되새기는 삶”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젊은 수좌들에게는 호랑이 스님으로 통하셨지만 진짜 호랑이 같이 무서운 면모는 스님 스스로의 수행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금오스님의 가르침을 내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물건은 인연을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어서 지금 흔한 것이 언제 귀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그릇의 밥과 죽도 내가 직접 동냥을 다니며 얻은 것이라 생각하면 음식 쓰레기 문제가 왜 나오겠습니까. 불자들은 일곱집의 밥을 얻으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연을 지어 성불의 길로 이끄는 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아는 자는 세는 하나일지라도 그 속의 마음이란 그렇게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겁니다. 스스로 마음에 속으면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니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는 용맹심을 한 순간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도 그대로 수행입니다. 곧 하나 매고 푸는데도 도가 있음을 알면 되는 겁니다.

에 식은땀이 흘러 내리더군요. 그런데 그 무지바한 사찰에서 딱 한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는 감사 위에 사는 스님(대처승)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끌려간 후 아버지는 스님된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행히 새운 아버지의 기도가 그 아들을 살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 충알을 여섯근이나 맞았는데 모두 살갓을 스치기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전쟁통에는 그런 기적도 있는 것인데 나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잡혀온 30여명 가운데 한사람은 잡혀오자마자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풀려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생이었고 어머니는 신원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만나러 와 절에 오다가 인민군에게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잡혀가고 바로 타계를 했으니 어머니의 목숨을 아들의 목숨과 바꾼 격이 아닙니까. 실로 눈물겨운 일이어서 잊혀질 수 없습니다. 그 대학생의 형은 인민군에 잡혀 대교도소에 있었는데 어느날 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내일 밖에 나갈일이 생기는데 나가는 즉시 뛰돌아 보지말고 도망가라'고 했답니다. 정말 아침이 되니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김성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30

반야심경은 진리를 '공'이라 표현하면서 '공'을 설명할 뿐 '밀'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야지가 없는 범부한테는 '밀'이 중요하다. 알을 알이로써는 알 수 없는 진리가 있음을 믿어야 반야심경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음없이 반야심경을 읽으면 '불교는 허무를 주장한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머리로는 생각하고 믿음없이 '공'이나 '무'를 풀이할 때 범부가 범하는 오류는 이런 것이다.

은 상상할 수가 없다. '아'를 벗어난 마음은 마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어의 상보성 원리에서 설명하듯이 자연은 본질적으로 이중성으로 되어 있다. 분별자로 보는 이중성을 이루는 전체를 볼 수 없고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만 보게 된다. 분별자로 보는 항상 주와 객으로 나누어 '아'를 주장하고 나머지를 '객'이라 하여 나눌 수 없는 하나를 억지로 둘로 나누어 보기에 진실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물질도 없고 시공간도 없고 아도 없는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려낼 수도 없어서 경전이 '무' 또는 '공'이라고 표현한 것을 '허무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경전이 '시고공중... 이무소득'이라고 실한 내용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 '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주·객이 일체로

“기도하는 마음자리에 좋은 인연 싹틔입니다” 끈 매고 푸는데도 道 있으니 세상살이가 수행

나는 동냥(탁발)을 더러 다니긴 했지만 밥을 얻으려는 다니지 않았습다. 금오스님께서 화살사예 계열적에 일년에 한두번씩은 모든 대중을 동냥하러 내 보냈습니다. '무연중생불능제도(無緣衆生不能渡度)'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는 이 의미는 부처님 당시부터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칠가식(七家食 일곱집의 밥을 얻어 식사함)을 하셔서 여러 중생과 인연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금오스님께서도 그런 인연만들기를 위해 남자들을 동냥길로 내보내는데 차비를 제법 취사 보내시니 동냥이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스님의 열불보시와 재가인의 재물보시가 어우러지는 동냥을 하며 참 많은 청중함을 배웠습니다. 공양의 의미를 제대로 배운 셈이지요. 무엇보다 하심(下心)의 도를 배울 수 있었고 재물, 그것도 정재의 청중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의 마음도 그렇게 날카로운 지고 예민해진다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귀든지 끈을 풀어서 물건을 쓰게 하셨는데 인간의 마음도 싹트지 않는 것이 아니고 풀이하는 것이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보나리를 살때도 보자기 끝을 묶어 매지 못하게 하시고 고를 지어 매게 하셨는데 풀기 쉬워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날과 상대하여 얘기할 때에 하심은 것이라고 흘러 버리지 말고 그 속에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삼가하여 막말을 하는 것을 경계하심 것도 말로 인해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세심한 행위 하나하나가 다 마음을 다스리고 닦는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밥을 얻어 먹으며 안면도로 가다가 정정을 만나 다시 계룡산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그 난리중에 기도의 인연으로 죽을 목숨이 살아나는 걸 체험했습니다. 나는 나의 대견에 인민군에게 잡혀 계룡산 댁소재지의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다른 곳에서 잡혀온 사람들 30여명이 그 좁은 방에 쪼그리쳐 다투는 지냈는데 나는 관음주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저 관음주력만 하며 다투는 보내고 나니 해거름에 소장(지서장)이 나를 불러 절로 돌아가라더군요. 뒤 돌아볼 겨를 없이 절로 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어느 스님이 지서로 와서 사정사정한 뒤에 내가 방면이 되었더군요. 나는 관음주력의 영험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나머지 사람들은 공주로 끌고가 길에 죽 세워 놓고 때발총을 난사해 다 사살해 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등

“탁발하며 공양·下心 정재의 의미 품으로 배웠죠” “혼한세상 흥청망청하니 음식쓰레기도 문제”

모두 마당으로 집합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 틈에 도망을 쳐서 살아 나갔다는 얘기도 뒷날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서로기도를 하고 몸을 버려 아들을 구했고 또 다른 아들들은 영혼이 되어서 구했던 셈입니다. 이것이 기도 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불가해한 인연의 힘인 것입니다. 칼로 자르듯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내 마음자리를 편케 하는 것이 참선이고 내 몸을 안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틈다 중요한 불자들의 실천 사항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불의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자리를 잘 조절하여 편케하고 몸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여 좋은 인연의 실체를 영위하는 지혜를 가려야 합니다.

“無我” “空” 깨달음만으로 체득하는 경지 믿음없이 머리로 심경 풀면 오류 범해

것이다. 시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 곳에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말을 듣고서 고개를 끄덕일지라도 보통 사람들은 시공간마저 없는 상태를 상상해내지 못한다. 이것은 '아'나 '마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교육이나 환경 등에서 벗어나 일체의 집착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무아지경'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상태를 자기식으로 그려낸다. 욕심도 없고 약한 마음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그려낸다. 욕심이 나쁜 것이 아니다. 욕심이란 인간의 활성(活性)이 나타난 것이니 근본적으로는 좋거나 나쁘거나 옳거나 그르다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활성은 활성일 뿐이다. 활성이 없다면 삶의 의미를 잃을 것이다. 문제는 잘못된 집착에 의해 활성이 이기적으로 나타나 타인을 해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즉 집착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여러색은 생각과 행위를 하게 되므로 경전은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집착가운데 가장 큰 집착은 아집이다. 아집에서 벗어나면 마음이라야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공간과 물질도 없는 상태를 상상할 수 없듯이 '아'마저 벗어 버린 마음을 보통사람들

된 상태에서 본 내용을 살하는 것이다. '공'이 이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지 대 거기에 무슨 수상행식이 있었으며 의식경계가 있었는가? 거기에 무슨 밝고 어두움의 상대적 구별이 있었는가?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에 무슨 높고 죽는 것이 있었으며 고집멸도가 있었는가? 모든 것이 일체화 되어 '아'가 따로 없는 상태에 무슨 지혜라는 것이 따로 있었는가? '공'에 관해서는 분별자로 판단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다저다 그리고 저렇다저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직 깨달음만으로 체득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믿을 수 없다면 경전을 버려야 한다. 물리학은 '공'을 기술할 수 없고 이중성을 발견하고 자연의 성질을 설명해도 물리학자들은 '공'을 체득한 것이 아니라 다만 물리적 시공간의 성질을 여러모로 자제하게 따져 자연이 단순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심경이 말하는 내용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물리학은 보통 사람들에게 믿음의 바탕을 마련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화대 교수·물리학과)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이자임 결혼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통선생은 사업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대구여래한방.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강좌안내. 원효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110-1 견지빌딩 4층. 원장 이영무. 서울시 종로구 110-1 견지빌딩 4층 원효연구원 원장 이영무

불교달력. 아직 달력을 맞추지 않으셨다면 불교달력 전문 인쇄공장으로 직접 주문 하십시오. 마음에 와 닿는 달력을 만나실것입니다. 서울 중구 오장동 69-2 강진 정판사. 전화 : 02)269-9755 FAX : 02)268-2391